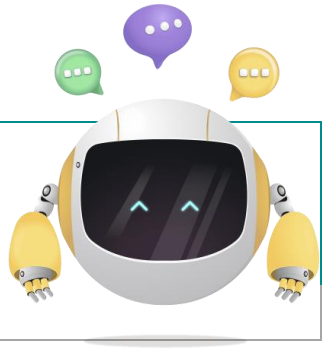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4.17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아마존,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시사점 & 위성 관련주 주가 영향

아마존(AMZN.US):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시사점

- 아마존은 4월 14일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를 주당 90달러, 총 115.7억 달러로 인수하는 계약 체결. 2017년 Whole Foods 인수 이후 최대 규모 M&A.
- 인수의 핵심 목적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해온 Amazon Leo(구 Project Kuiper)에 D2D 역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 D2D는 지상 기지국 없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로, 글로벌스타가 보유한 S-band (Band 53/n53) 글로벌 독점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이를 구현하는 핵심 자산
-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Amazon Leo에 글로벌스타의 위성 운용 인프라, 지상국 네트워크, 글로벌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통합하고, 2028년부터 D2D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
- 현재 글로벌스타 위성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Apple iPhone 및 Apple Watch의 긴급 SOS 위성 서비스도 Amazon Leo 체제로 이관, 확장하는 계약을 Apple과 병행 체결
- 이번 인수는 Space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구축해온 저궤도 위성 생태계에 맞서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위성 통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관련 보도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관련 종목군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위성 스펙트럼 자산 전반의 희소성과 가치를 재확인시켰기 때문

넷플릭스(NFLX.US): 1Q26 Review: M&A 취소에도 26년 비용 가이던스 유지, 수익성 우려로 주가하락

- 26년 1분기 매출 122.5억 달러(+16.2%), 조정 EPS 1.23 달러로 시장 컨센을 각각 1%, 60% 상회했으나 2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 WB 인수 계획 취소로 관련 비용 미발생했으나 27년 예정 비용을 미리 앞당기면서 26년 영업이익률 그대로 유지. 시청지표와 가입자 관련 코멘트 등은 긍정적이나 매출은 부합 수준이고 수익성 전망치가 기대치를 하회한 점이 영향을 미치며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
-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25.7억 달러 (컨센 126.1억), 조정 EPS 0.78 달러(컨센 0.84)
- 2026년 연간 가이던스 유지. 매출 성장률 12~14%, 영업이익률 31.5%, 광고 매출 목표 3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배
- 연초 가이던스에 M&A 관련 비용 2.8억달러 포함, WB딜 철수로 일부 비용 미발생, 그러나 27년 예정 비용 일부가 26년으로 당겨지면서 26년 영업이익률 전망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기존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
- 미국 구독료 인상은 사전 계획된 조치로 연간 가이던스에 이미 반영
- 1분기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시청시간 성장률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성장률 유지
- 광고주 기반은 2025년 광고주 수 YoY 70% 성장, 총 4천개사 이상 광고주 확보. 현재는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운영.
- 자체 광고 테크 스택으로 전환이 광고 사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 기반,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 편의성 대폭 향상. 자체 스택에 더해 다수의 DSP 파트너 추가.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채널 다양화. DSP 확대가 프로그래매틱 광고 성장의 동인
- 지역별 성장을 보면 APAC 지역이 1분기 환율 중립 기준 최고 성장 기록, WBC Japan 효과와 인도, 한국, 동남아 전반 강세
- WBC Japan 3,140만 시청자 기록, 글로벌 최대 야구 스트리밍 이벤트 달성. WBC 이후 다른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도 동반 상승. 라이브 이벤트의 콘텐츠 헤일로 효과 확인
- 넬슨이 시청률 측정 방식 변경해 스트리밍 가구 가중치를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리밍 시청률이 낮아지게 되었으나 스트리밍 시청량과 관계가 없으며 광고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넬슨 지표가 광고거래의 기준 지표가 아니기 때문

ASML(ASML.US): EUV 슈퍼사이클 재확인

주요 지표

- FY26 1분기 매출 87.7억 유로(예상치 85.5억), EPS 7.15(예상치 6.64)로 시장 예상치 상회
- FY26 2분기 가이던스 매출 84~90억 유로(예상치 90.4억), GPM 51~52%(예상치 52.5%)로 시장 예상치 하회.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업그레이드 패턴이 1분기만큼 강하지 않고 증산에 따른 인력 채용·교육 비용이 선반영되기 때문
- FY26 연간 매출 가이던스 기존 340~390억 유로에서 360~400억 유로로 상향. GPM은 기존 51~52%를 유지

ASP & 제품 믹스 전망

- 2026년은 출하되는 EUV 장비의 대부분이 현재 주력인 E 모델이고 구형 D 모델이 약 20% 정도 섞여 있음. 그런데 2027년에는 구형 D가 거의 사라지고 신형 F가 도입될 예정. F는 E보다 시간당 처리량이 약 15% 높으니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격 책정은 시장 공급 부족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고객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유지함

TSMC(TSM.US): AI 수요 재확인에 따른 증설 가속

주요 지표

- FY26 1분기 매출 359억 달러(예상치 355억), GPM 66.2%(예상치 64.5%), 순이익 181억(예상치 170억)으로 시장 예상치 상회
- 플랫폼별로는 HPC 61% (QoQ +20%)로 비중 확대, 스마트폰 26% (QoQ -11%)로 축소, 자동차 4% (QoQ -7%) 약세
- FY26 2분기 가이던스 매출 390~402억 달러(예상치 381억), GPM 65.5~67.5%(예상치 64.1%), OPM 56.5~58.5%(예상치 55.2%)로 시장 예상치 상회
- FY26 연간 매출 성장률 기존 20% 중반에서 30% 상회로 상향. Capex는 520~560억 달러를 유지하되 가이던스의 상단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파운드리 경쟁 코멘트

- 인텔과 테슬라를 TSMC의 고객이자 경쟁자로 명시. 특히 인텔을 “만만치 않은 경쟁자이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
- 다만 테라팹 대해서는 팹 건설에 2~3년, ramp에 추가 1~2년이 소요되며, 신규 진입자 대비 시간·자본·기술 리더십·고객 신뢰 기반의 해자를 재확인
-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한 NVIDIA Vera Rubin SuperPOD 내 LPU 관련 질문에 대해 Wei CEO는 “차세대 LPU에 대해 해당 고객과 협력 중” 이라고 답변. 차세대 LPU 수주 가능성 확대
- Advanced packaging 부문에서는 대면적 리티클 사이즈의 CoWoS가 현재 주력 솔루션이며, CoPoS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으로 수년 뒤 양산이 예정. 인텔 EMIB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지 다변화를 환영한다는 원론적 코멘트에 그침. 다만, Advanced packaging 캐파 역시 전공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며, OSAT 파트너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전략이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

AI/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타게이트 노르웨이 230MW 인수

- 당초 오픈AI의 Stargate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기획됐던 노르웨이 나르비크(Narvik) 북극권 캠퍼스의 데이터센터 캐파를 대신 인수, 영국계 네오클라우드 Nscale을 통해 엔비디아 Vera Rubin GPU 3만개를 추가 임차한다고 발표

메타(META.US): 메타-브로드컴 MTIA 1GW 초기 배치 및 2029년까지 멀티기가와트 확장 합의

- 메타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가속기 MTIA(Meta Training and Inference Accelerator)의 2029년까지 공동 설계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초기 1GW 규모 배치·장기적으로 멀티기가와트 스케일업을 공식화

팔란티어(PLTR.US): 트럼프 대통령 팔란티어 공개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뛰어난 전투 수행 능력과 장비를 입증했다, 우리의 적들에게 물어보라"며 팔란티어를 공개적으로 지지 함

코어위브(CRWV.US): 앤스로픽과의 다년 계약 체결

- 앤스로픽과 Claude 제품군 프로덕션 스케일 운영을 위한 다년 인프라 계약을 체결

오픈AI(비상장): 신임 CRO 사내 메모 공개

- 오픈AI의 신임 CRO 데니스 드레서(Denise Dresser, 전 Slack CEO·세일즈포스 출신, 지난해 12월 영입)가 일요일 사내 메모를 통해 "MS 파트너십은 우리의 성공에 근간이었으나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해왔고, 다수 기업에게 그 접점은 곧 Bedrock"이라 명시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Mythos 배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

- 앤스로픽이 사이버보안용으로 별도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코드 추론·자율 실행 능력의 부산물로 주요 OS·브라우저에서 수천 건의 zero-day 취약점을 발견해낸 Claude Mythos Preview를 Project Glasswing이란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약 50개 기관에만 선별 배포

우주/로봇

아마존(AMZN.US): 글로벌스타 116억 달러에 인수

- 아마존이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Globalstar)를 주당 90달러·현금·주식 혼합 방식으로 총 약 11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

알파벳(GOOGL.US): 웨이모 런던 공공도로 자율주행 테스트 개시

- 웨이모가 런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본격 개시하며 연내 첫 국제 상업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 현재는 재규어 I-Pace 기반 전기 차량에 Waymo 자율주행 스택을 탑재한 채 안전 스페셜리스트가 운전석에 배석하는 단계이며, 지난해 10월 런던 진출 계획 공표 이후 수개월 간 직원들이 수동 주행으로 도시 맵핑을 수행한 뒤 자율 주행 검증 단계로 이행한 것

테슬라(TSLA.US): 테슬라 FSD 앱 리디자인

- 테슬라가 재설계된 Self-Driving 앱을 다음 메이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포함해 공개하면서 FSD(Full Self-Driving·Supervised) 구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용 빈도를 시각화하는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를 전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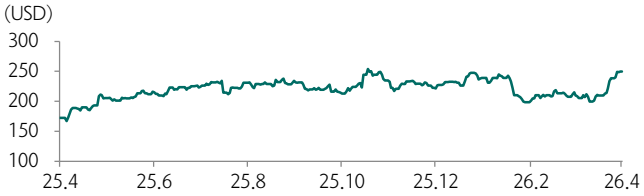
스페이스X(비상장): IPO를 위한 투자자 현장 투어 본격화

- 6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 IPO의 앵커 투자 확보를 위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 대형 지분 참여가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텍사스 간판 시설 현장 투어를 준비 중

아마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플랫폼
시가총액(십억달러)
2,685

최근 주가 추이



아마존(AMZN.US):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 인수 시사점 & 위성 관련주 주가 영향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시사점

- 아마존은 4월 14일 위성 통신 기업 Globalstar를 주당 90달러, 총 115.7억 달러로 인수하는 계약 체결. 2017년 Whole Foods 인수 이후 최대 규모 M&A.
- 인수의 핵심 목적은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집중해온 Amazon Leo(구 Project Kuiper)에 D2D 역량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 D2D는 지상 기지국 없이 일반 스마트폰에 직접 위성 신호를 전송하는 기술로, 글로벌스타가 보유한 S-band (Band 53/n53) 글로벌 독점 스펙트럼 라이선스가 이를 구현하는 핵심 자산
- 아마존은 이번 인수를 통해 Amazon Leo에 글로벌스타의 위성 운용 인프라, 지상국 네트워크, 글로벌 스펙트럼 라이선스를 통합하고, 2028년부터 D2D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는 계획
- 현재 글로벌스타 위성망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Apple iPhone 및 Apple Watch의 긴급 SOS 위성 서비스도 Amazon Leo 체제로 이관, 확장하는 계약을 Apple과 병행 체결
- 이번 인수는 SpaceX의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가 구축해온 저궤도 위성 생태계에 맞서기 위한 포석으로, 향후 가파르게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위성 통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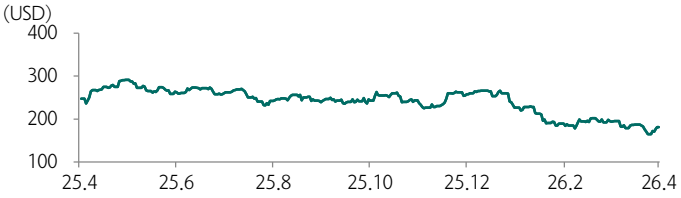
위성 통신 종목군에 주가 영향

-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 관련 보도는 공식 발표가 있기 전부터 관련 종목군에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위성 스펙트럼 자산 전반의 희소성과 가치를 재확인시켰기 때문.
- 이리디움(IRDM)의 경우 희소 L-band 및 S-band 스펙트럼이 D2D 시장의 핵심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위성 네트워크 기업이 대형 테크 기업의 인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 부각
- 에코스타(SATS)의 경우 스페이스X가 이미 에코스타의 MSS 스펙트럼 일부를 매입해 스타링크 D2C를 구축중인 상황에서 이번 아마존의 글로벌스타 인수로 위성 스펙트럼 자산 가치 재확인 되며 주가 상승. 바이어셋(VSAT)도 MSS 스펙트럼 보유사로 재평가
- 반대로 AST스페이스모바일(ASTS)은 아마존의 D2D 시장 진입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 하락. 스페이스X, ASTS에 이어 아마존이 D2D 시장의 세번째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2자 경쟁에서 3자 경쟁으로 바뀐다는 점이 투자심리에 영향.
-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이후 ASTS와 스페이스X가 자사 네트워크 용량 확장을 위해 추가 스펙트럼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 아마존이 글로벌스타의 S-band 스펙트럼을 가져가면서, ASTS 입장에서는 향후 네트워크 확장에 필요한 스펙트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고 비싸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넷플릭스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미디어
시가총액(십억달러)
457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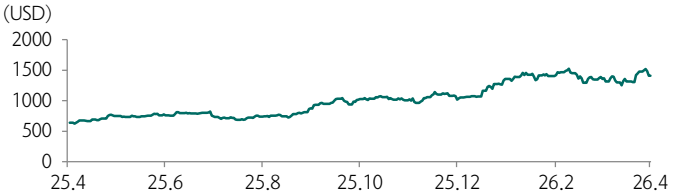
1Q26 Review: M&A 취소에도 26년 비용 가이던스 유지, 수익성 우려로 주가하락

- 26년 1분기 매출 122.5억 달러(+16.2%), 조정 EPS 1.23 달러로 시장 컨센을 각각 1%, 60% 상회했으나 2분기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 WB 인수 계획 취소로 관련 비용 미발생했으나 27년 예정 비용을 미리 앞당기면서 26년 영업이익률 그대로 유지. 시청지표와 가입자 관련 코멘트 등은 긍정적이나 매출은 부합 수준이고 수익성 전망치가 기대치를 하회한 점이 영향을 미치며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하락
- 2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25.7억 달러 (컨센 126.1억), 조정 EPS 0.78 달러(컨센 0.84)
- 2026년 연간 가이던스 유지. 매출 성장률 12~14%, 영업이익률 31.5%, 광고 매출 목표 30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2배
- 연초 가이던스에 M&A 관련 비용 2.8억달러 포함, WB딜 철수로 일부 비용 미발생, 그러나 27년 예정 비용 일부가 26년으로 당겨지면서 26년 영업이익률 전망에 실질적 영향이 없어 기존 가이던스 그대로 유지
- 미국 구독료 인상은 사전 계획된 조치로 연간 가이던스에 이미 반영
- 1분기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시청시간 성장률 2025년 하반기와 유사한 성장률 유지
- 광고주 기반은 2025년 광고주 수 YoY 70% 성장, 총 4천개사 이상 광고주 확보. 현재는 대형 광고주 중심으로 운영.
- 자체 광고 테크 스택으로 전환이 광고 사업 성장의 핵심 인프라 기반,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 편의성 대폭 향상. 자체 스택에 더해 다수의 DSP 파트너 추가. 광고주 입장에서 구매채널 다양화. DSP 확대가 프로그래매틱 광고 성장의 동인
- 지역별 성장을 보면 APAC 지역이 1분기 환율 중립 기준 최고 성장 기록, WBC Japan 효과와 인도, 한국, 동남아 전반 강세
- WBC Japan 3,140만 시청자 기록, 글로벌 최대 야구 스트리밍 이벤트 달성. WBC 이후 다른 일본 오리지널 시리즈 시청도 동반 상승. 라이브 이벤트의 콘텐츠 헤일로 효과 확인
- 넬슨이 시청률 측정 방식 변경해 스트리밍 가구 가중치를 축소하여 상대적으로 스트리밍 시청률이 낮아지게 되었으나 스트리밍 시청량과 관계가 없으며 광고사업에 미치는 영향 없음. 넬슨 지표가 광고거래의 기준 지표가 아니기 때문

ASML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장비
시가총액(십억달러)
559

최근 주가 추이



ASML(ASML.US): EUV 슈퍼사이클 재확인

주요 지표

- FY26 1분기 매출 87.7억 유로(예상치 85.5억), EPS 7.15(예상치 6.64)로 시장 예상치 상회
- FY26 2분기 가이던스 매출 84~90억 유로(예상치 90.4억), GPM 51~52%(예상치 52.5%)로 시장 예상치 하회. 2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업그레이드 패턴이 1분기만큼 강하지 않고 증산에 따른 인력 채용·교육 비용이 선반영되기 때문
- FY26 연간 매출 가이던스 기존 340~390억 유로에서 360~400억 유로로 상향. GPM은 기존 51~52%를 유지

수요 환경 & 2027년 생산 능력

-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는 구조 형성. 메모리 고객들은 올해 남은 물량 이미 완판됐고 2026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 지속 전망. 로직 고객들은 2나노 양산 확대하면서 여러 첨단 노드에 걸쳐 동시 증설 중임. 양쪽 모두 자사 고객과의 장기 계약 기반으로 자본 지출 가속화하는 중. 특히 메모리는 EUV 채택 확대(다중 패터닝 축소 → 팹 공간 절약 효과)로 ASML에게 큰 수혜가 되고 있음. 미국 DRAM 고객(마이크론)도 EUV 전환 강화 발표한 상태
- 2026년은 Low NA EUV 최소 60대 생산 계획 실행 중. 2027년은 Low NA EUV 최소 80대 목표(예상치 70대 후반)로 제시했고, 이는 2025년(44대) 대비 대수 기준 약 2배. 생산성 개선까지 더하면 시간당 웨이퍼 처리 능력 기준으로 2배 이상 도달 가능

기술 로드맵 제시

- Low NA EUV 로드맵을 업데이트. ASML 장비의 핵심 성능 지표는 시간당 몇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느냐(WPH) 인데 현재 주력인 NXE:3800E는 업그레이드로 시간당 220장에서 230장으로 끌어올려 즉시 제공하고, 차세대 모델인 NXE:3800F는 원래 250장이었던 사양을 260장으로 상향
- F 모델은 2027년부터 출하 시작해서 2028년에 본격 양산 들어갈 계획. 더 장기로는 EUV 빛을 만드는 광원의 출력 확대를 통해 2030년대 초에 Low NA에서 시간당 최소 330장 목표를 제시
- 차세대 High NA 장비는 현재 누적 50만 장 이상 웨이퍼를 처리했고 가동률 80% 이상 달성하며 실전 검증 단계에 들어섬. 기존 다중 패터닝(multi-patterning)을 통해 3~4번 나눠서 찍어야 하는 Low NA와 달리 High NA는 해상도가 더 높아서 한 번의 노광으로 대체 가능. 이를 통해 시간, 비용, 팹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음. 일부 핵심 레이어에서는 공정 단계를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고, 로직 칩과 메모리 3개 세대에 걸쳐 단일 노광 방식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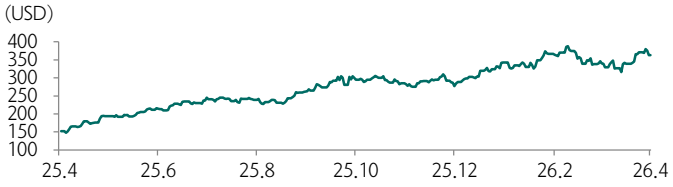
ASP & 제품 믹스 전망

- 2026년은 출하되는 EUV 장비의 대부분이 현재 주력인 E 모델이고 구형 D 모델이 약 20% 정도 섞여 있음. 그런데 2027년에는 구형 D가 거의 사라지고 신형 F가 도입될 예정. F는 E보다 시간당 처리량이 약 15% 높으니 가격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가격 책정은 시장 공급 부족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고객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 유지함

TSMC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1,884

최근 주가 추이



TSMC(TSM.US): AI 수요 재확인에 따른 증설 가속

주요 지표

- FY26 1분기 매출 359억 달러(예상치 355억), GPM 66.2%(예상치 64.5%), 순이익 181억(예상치 170억)으로 시장 예상치 상회
- 플랫폼별로는 HPC 61% (QoQ +20%)로 비중 확대, 스마트폰 26% (QoQ -11%)로 축소, 자동차 4% (QoQ -7%) 약세
- FY26 2분기 가이던스 매출 390~402억 달러(예상치 381억), GPM 65.5~67.5%(예상치 64.1%), OPM 56.5~58.5%(예상치 55.2%)로 시장 예상치 상회
- FY26 연간 매출 성장률 기존 약 30%에서 30% 이상 성장으로 상향. Capex는 520~560억 달러를 유지하되 가이던스의 상단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CAPA 확장 가속

- TSMC는 특정 노드가 목표 CAPA에 도달한 이후에는 추가 증설을 지양해왔으나, 이번 분기부터 N3 글로벌 캐파 확장을 공식화함. 이는 AI 수요의 구조적 강도가 기존 계획 대비 상회하고 있음을 방증
- 대만 타이난 기가팹 클러스터 내 신규 N3 팹 추가(27년 1H 양산), 미국 애리조나 2번째 fab의 N3 전환(27년 2H 양산), 일본 2번째 팹의 N3 활용(28년 양산)이 동시 진행
- N3 GPM은 2H26 중 타 노드 평균을 돌파 예정이며, 감가상각 완료 이후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마진 기여가 기대

강력한 AI 수요 재확인

- CEO Wei는 AI 수요가 극도로 견조하다고 말함. 특히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틱AI로의 전환이 토큰 소비량의 상향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 CSP 고객과 고객의 고객(엔드 유저)으로부터 확인되는 수요 시그널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관됨을 확인
- AI 가속기 CAGR은 기존 24~29년 50% 중후반에서 50% 후반대로 상향하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침

파운드리 경쟁 코멘트

- 인텔과 테슬라를 TSMC의 고객이자 경쟁자로 명시. 특히 인텔을 “만만치 않은 경쟁자이며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
- 다만 테라팹 대해서는 팹 건설에 2~3년, ramp에 추가 1~2년이 소요되며, 신규 진입자 대비 시간·자본·기술 리더십·고객 신뢰 기반의 해자를 재확인
- 삼성 파운드리가 수주한 NVIDIA Vera Rubin SuperPOD 내 LPU 관련 질문에 대해 Wei CEO는 “차세대 LPU에 대해 해당 고객과 협력 중” 이라고 답변. 차세대 LPU 수주 가능성 확대
- Advanced packaging 부문에서는 대면적 리티클 사이즈의 CoWoS가 현재 주력 솔루션이며, CoPoS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으로 수년 뒤 양산이 예정. 인텔 EMIB와의 경쟁에 대해서는 고객 선택지 다변화를 환영한다는 원론적 코멘트에 그침. 다만, Advanced packaging 캐파 역시 전공정과 마찬가지로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며, OSAT 파트너와의 협업 확대를 통해 전략이 병행되고 있음을 확인

AI/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스타게이트 노르웨이 230MW 인수

- 당초 오픈AI의 Stargate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기획됐던 노르웨이 나르비크(Narvik) 북극권 캠퍼스의 데이터센터 캐파를 대신 인수, 영국계 네오클라우드 Nscale을 통해 엔비디아 Vera Rubin GPU 3만개를 추가 임차한다고 발표
- 이번 계약은 동일 부지에 이미 집행된 62억 달러 규모 위에 추가되는 것으로, 2026년 개시 5년 계약·100% 재생에너지 기반·최대 10만개 GPU 배치를 목표로 함

메타(META.US): 메타-브로드컴 MTIA 1GW 초기 배치 및 2029년까지 멀티기가와트 확장 합의

- 메타가 브로드컴과 자체 AI 가속기 MTIA(Meta Training and Inference Accelerator)의 2029년까지 공동 설계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초기 1GW 규모 배치·장기적으로 멀티기가와트 스케일업을 공식화
- 동시에 브로드컴 CEO Hock Tan이 2024년 합류했던 메타 이사회에서 차기 주주총회 재선임을 포기하고 커스텀 실리콘 로드맵 자문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팔란티어(PLTR.US): 트럼프 대통령 팔란티어 공개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뛰어난 전투 수행 능력과 장비를 입증했다, 우리의 적들에게 물어보라"며 팔란티어를 공개적으로 지지 함
- 하지만 마이클 버리(Michael Burry)는 2025년 가을 구축한 숏 포지션을 2027년 6월 만기 행사가 50달러 풋·2026년 12월 만기 행사가 100달러 풋으로 롤오버하며 유지 중이라 밝혔고, 지난해 약 200달러 고점에서 금요일 128.06달러로 레벨 다운된 상황에서 적정가치는 50달러 미만이라는 극단적 밸류에이션 견해를 재확인

코어위브(CRWV.US): 앤스로픽과의 다년 계약 체결

- 앤스로픽과 Claude 제품군 프로덕션 스케일 운영을 위한 다년 인프라 계약을 체결
-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는 이번 건을 "multi-billion dollar" 규모로 언급(계약 금액·GPU 수량·데이터센터 위치는 비공개)

오픈AI(비상장): 신임 CRO 사내 메모 공개

- 오픈AI의 신임 CRO 데니스 드레서(Denise Dresser, 전 Slack CEO·세일즈포스 출신, 지난해 12월 영입)가 일요일 사내 메모를 통해 "MS 파트너십은 우리의 성공에 근간이었으나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해왔고, 다수 기업에게 그 접점은 곧 Bedrock"이라 명시
- 2월 말 공표된 아마존과의 최대 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이후 인바운드 수요가 "말 그대로 압도적(staggering)"이라고 강조하며, AWS의 멀티 모델 플랫폼 Bedrock을 엔터프라이즈 확장의 핵심 채널로 공식화 함

앤스로픽(비상장): Claude Mythos 배포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

- 앤스로픽이 사이버보안용으로 별도 훈련되지 않았음에도 코드 추론·자율 실행 능력의 부산물로 주요 OS·브라우저에서 수천 건의 zero-day 취약점을 발견해낸 Claude Mythos Preview를 Project Glasswing이란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약 50개 기관에만 선별 배포
- 출시 직전 JD 밴스 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다리오 아모데이(Anthropic)·일론 머스크(xAI)·순다르 피차이(구글)·사티아 나델라(MS)·샘 알트만(오픈AI)·CrowdStrike CEO·팔로알토네트웍스 CEO 등 주요 빅테크·사이버보안 수장을 전화 회의로 소집해 AI 모델 보안과 사이버 대응 체계를 점검
- 베센트 장관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Financial Services Forum 참석차 워싱턴에 체류 중이던 주요 은행 CEO(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뱅크오브아메리카 브라이언 모이니한 등, JP모건 다이먼은 불참)를 긴급 소집해 Mythos가 제기하는 금융 시스템 사이버 위협을 논의하고 JPM·골드만·씨티·BofA·모건스탠리에 Mythos 테스트를 장려함

우주/로봇

아마존(AMZN.US): 글로벌스타 116억 달러에 인수

- 아마존이 위성통신 사업자 글로벌스타(Globalstar)를 주당 90달러·현금·주식 혼합 방식으로 총 약 116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
- 단순 캐파 확보를 넘어 글로벌스타가 보유한 라디오 주파수 면허(RF 스펙트럼)와 Apple의 iPhone 긴급 위성 메시징(Emergency SOS) 트래픽이 Amazon Leo로 이관되게 됨. 아마존은 2028년 기지국 없이 모바일 기기에 직결되는 D2C 상용 서비스 출시를 공식 로드맵으로 제시

알파벳(GOOGL.US): 웨이모 런던 공공도로 자율주행 테스트 개시

- 웨이모가 런던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본격 개시하며 연내 첫 국제 상업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최종 단계에 돌입. 현재는 재규어 I-Pace 기반 전기 차량에 Waymo 자율주행 스택을 탑재한 채 안전 스페셜리스트가 운전석에 배석하는 단계이며, 지난해 10월 런던 진출 계획 공표 이후 수개월 간 직원들이 수동 주행으로 도시 맵핑을 수행한 뒤 자율 주행 검증 단계로 이행한 것
- 다만 연내 상업 론칭은 영국 정부의 자율주행 상업 운영 승인 절차 최종화에 좌우되는 구조로, 웨이모는 2019년 옥스포드대 CS 학부에서 스핀아웃된 영국 스타트업 Latent Logic(모방학습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인수해 옥스포드에 엔지니어링 허브를 운영하는 등 현지 기반을 이미 갖춘 상태

테슬라(TSLA.US): 테슬라 FSD 앱 리디자인

- 테슬라가 재설계된 Self-Driving 앱을 다음 메이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포함해 공개하면서 FSD(Full Self-Driving·Supervised) 구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용 빈도를 시각화하는 게임화(gamification) 요소를 전면 도입
- 신규 앱은 기존 차량 터치스크린·모바일 앱에서 수 단계 거쳤던 구독 프로세스를 원탭 가입으로 단축하고, 현재 누적 주행거리 대비 FSD 주행 비중만 표시되던 UI를 일간 사용량 바 차트·연속 사용 일수 'streaks(연속 기록)' 등 피트니스 트래커식 지표로 확장해 행동 심리학 기반의 사용 빈도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

스페이스X(비상장): IPO를 위한 투자자 현장 투어 본격화

- 6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사상 최대 규모 IPO의 앵커 투자 확보를 위해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등 대형 지분 참여가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캘리포니아·텍사스 간판 시설 현장 투어를 준비 중
- 뉴욕발 전세기편을 수 주 내 띄워 일론 머스크의 xAI가 대형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짓고 있는 미시시피까지 포함하는 멀티 사이트 일정을 가동할 계획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4월 17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